



성공하려면 위인을 벤치마킹하라

역사 속에는 무수히 많은 위인들이 존재하고, 우리는 그들을 통해 보다 나은 삶을 꿈꾸기도 한다. 사해의 계획과 목표를 다짐하는 1월 대장군 이순신, 예술가이자 민족의 어머니 신사임당, 끈기와 창의력으로 뭉친 과학자 장영실의 삶을 통해 2005년 자신을 보다 가치있고, 아름답게 조각해보자.

이순신이 들려주는 '기획적 인간'

이순신 장군은 모든 전투에서, 그리고 삶 속에서 '전략적 의지'란 말을 강조했다. 장군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기획적 인간'에 대해 말하고 있었던 것이다.

장군은 매일 밤 허리끈을 풀지 않고 잠을 잤다. 겨우 서너 시간을 잔 후 일어나서 사람을 불러 의논하기를 날이 셀 때까지 했다. 또 식사는 아침저녁으로 오죽 흡의 밥으로 끝냈으므로 이를 본 사람들은 일은 많은데 식사가 적은 것을 크게 걱정했다

이는 이순신 장군의 진중 생활을 기록한 글의 한 대목이다. 장군 스스로도 새로운 진법을 계획하기 위해 지형부터 풍속, 풍향, 일기 등을 세세히 관찰하고 몇 날을 굶어가면서까지 철저한 전략을 수립했다고 한다.

계획이란, 그리고 기획이란 바로 그런 것이다. 자신의 앞길을 내다보고 실행에 앞서 현재의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계획이다.

경기는 여전히 어렵고 실업자 또한 꾸준한 증가를 보이는 이때, 막연히 밝아오는 새

해를 '운'이나 '복'이란 추상적인 개념에 맡기지 말고, 자신의 현재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세세한 부분까지도 꼼꼼한 계획을 세워보자.

자기의 가치를 한껏 높일 수 있는 자기조각이란 바로 이순신 장군이 그러했듯 철저한 계획에서 시작된다.

장영실이 보여주는 '의지형 인간'

조선 최고의 과학자인 장영실을 이야기할 때면 누구든지 천재를 떠올린다. 하지만

그의 노력과 성실함은 재능을 훨씬 앞서는 것으로, 그의 삶을 통해 우리는 '의지형 인간'의 참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세종대왕을 도와 조선을 최대의 과학 국가로 만든 장본인이기도 한 그는, 기생의 자식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궁중의 기술자인 상호군에 오르기도 한다. 더욱이 발명가라 하면, 조선 초기에는 상당한 업신여김을 받아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를 끝까지 펼쳐나가 결국엔 세종대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은 것은 물론이며, 비의 양을 측정하는 '측우기'를 비롯해 천문을 관측하는 '혼천의', 금속활자인 '갑인자', 우리나라 최초의 물시계인 '자격루'를 만들었다.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끝까지 성실하게 노력한 장영실의 삶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일깨워준다. 사회가 어렵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윗사람의 기분에 맞추어 안주하며 주위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삶의 지표로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제아무리 뛰어난 재능과 노력이 있다 해도 아름다운 자신만의 조각을 만들 수 없다.

철저한 계획이 준비되었다면, 망설임 없이 자신의 의지를 펼칠 수 있어야 한다. 현



재의 상황이 어떠한든, 주위의 사람들이 어떤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든 불굴의 의지가 있어야만 아름다운 자기조각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신사임당의 '희생형 인간'

신사임당은 모든 희노애락을 겪으며 한 가정의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그리고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다했다. 실제 그녀는 율곡 형제를 가르치느라 일생동안 놀이 한번 나간 일이 없었다. 시, 서, 화에 있어 여류명인이었던 신사임당은, 현재까지도 덕이 높은 현부인이요, 아버지에게 지극한 효녀이면서 어진 어머니이기도 했다.

신사임당은 자녀들과 자애와 관용으로서 '사람다운 사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도록 항상 당부했으며 몸소 언행과 행동에 있어 모범이 되기도 했다.

NQ(관계지수)라 해서 사람간의 관계가 새로운 자기관리법으로 떠오르고 있는 요즘, 신사임당이 보여준 희생은 바른 인간관계를 알려주는 좋은 지침서가 된다.

철저한 계획이 준비되고, 의지를 굽히지 않으며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자기조각을 이뤄냈다면, 이제 남들에게 희생할 마음이 필요하다.

쉽게는 주변 사람들의 고민을 나눠 갖는 것, 그것은 곧 언젠가 자신의 고민을 덜어줄 소중한 사람을 만드는 일이다.

보다 넓게는 어려운 이들을 돕고 함께하며 주위의 사람들에게 신임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